



왼쪽부터 서수연·김영진·김정길·박진철·남기원

광주시청 탁구선수단 ‘메달 7개’ 투지 빛났다

서수연·김영진·김정길

박진철·남기원 맹활약

은 5·동 2개 효과종목 노릇 톡톡

한국 금 2·은 10·동 12개 41위

도쿄패럴림픽 폐막 13일 환영식

2020 도쿄 패럴림픽이 5일 막을 내렸다. 한국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했다.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열악한 환경을 딛고 ‘꿈의 무대’에 오른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가 빛난 대회였다. 특히 지역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광주시청 탁구팀 6명 전원이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로 향한 가운데 5명이 메달을 획득했다. 서수연(35), 김영진(37), 김정길(35), 박진철(39), 남기원(55)이 그 주인공이다. 서수연은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1-2)과 여

자 단체(스포츠등급 TT1-3)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수연은단식에서 2016년 리우대회에서 만났던 ‘디펜딩 챔피언’ 류징(33·중국)과 리턴매치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분패, 2위를 차지했다.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와 함께 나선 단체전에서는 중국의 리첸-류징-쉐위안에 0-2로 패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들 세 명은 2016년 리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사이이다. 5년 만에 열린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이날 중국의 막혀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3년 뒤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반드시 따내겠다는 각오다. 한국 남자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터줏대감’ 김영진도 남자 단식(스포츠등급 TT4)과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에서 각각 은메달

을 기록했다. 김영진은 단식 결승에서 ‘리우 디펜딩 챔피언’ 압둘라 외즈튀르크(터키)에게 1-3으로 역전패했다.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의 개인전 단식 금메달에 도전한 김영진은 어렵게 우승을 놓쳐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서는 김정길,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과 함께 나섰으나 결승에서 중국의 차오닝닝, 귀성위안, 장옌에 매치스코어 0-2로 패했다. 박진철은 개인 단식(TT2)에서 동메달, 단체전(스포츠등급TT1-2)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먼저 열린 단식에서 3위를 한 박진철은 단체전에서 더 높은 순위를 노렸다. 차수용(41·대구시), 김현욱(26·울산시장애인체육회)과 호흡을 맞춘 박진철은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의 파비앵 라미로, 스테판 폴리앙에게 매치 스코

어 0-2로 졌다. 남기원은 단식(스포츠등급 TT1) 준결승에서 주영대에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의 광주시청 이지석(47)은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SH2·경추장애) 결선에서 211.0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양궁의 광주시청 조장문(55)은 혼성 단체 리커브 8강에서, 선수단 최고령으로 나선 광주시청 김옥금(61)은 개인전 8강에서 탈락하며 도쿄 여정을 마쳤다. 대회 폐막일인 5일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41위에 자리했다. 4일 보치아 대표팀이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고 마지막 날 배드민턴의 김정준(43·울산중구청)이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 두 개로 힘을 보탰으나 기대하던 성적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1968년 처음 출전한 텔아비브(이스라엘)대회 이후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역대 최

고 성적은 1988 서울 대회(금메달 40개·은메달 35개·동메달 19개)의 종합 7위다. 2008년 베이징 대회 13위(금메달 10개·은메달 8개·동메달 13개), 2012년 런던 대회 12위(금메달 9개·은메달 9개·동메달 9개), 2016년 리우 대회 20위(금메달 7개·은메달 11개·동메달 17개)와 비교하면 또렷한 하락세다. 한국은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기초종목 수영, 육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양궁 대표팀은 텔아비브 대회 이후 53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했다. 그래도 총 메달 개수로 매진 순위가 15위(24개)인 점은 위안거리다. 또 탁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따내며 ‘효과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도쿄패럴림픽 선수단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전남공도팀이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공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대통령기 전국공도대회 우승

남자일반부 단체전 대회 2연패

개인전 우승은 광주 김연수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공도대회에서 전남공도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광주 공도팀 김연수에게 돌아갔다. 김경하(신안 용항정), 김승현(신안 용항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하선범(진도 창덕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이기효(진도 창덕정), 고민구(고흥 흥무정)가 출전한 전남 공

도팀은 최근 전북 순창군 육일정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광주 공도팀을 꺾고 우승했다. 전남은 합계 62점으로 광주와 동점이 됐으나 테스매치 방식(비교사)인 재대결을 펼쳐 광주를 꺾고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전남 공도팀은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전국 최강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개인전에서는 광주 대표 김연수가 15점으로 세종시 안중현(14), 충북 이원근(14)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 북구체육회 지도영상 홍보 전국 3위

2020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광주시 북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도영상 홍보성과 부분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북구체육회는 지난해 18만5,205건을 홍보, 경기 의정부시체육회, 서울 은평구체육회에 이어 전국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운영성과점수, 수혜자만족도, 구성원 업무성과, 예산평가, 지도자 직무 만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콘텐츠제작 및 교육실적 산출기준 도시형 평가에서 4위의 주목할 만한 성적을 보였다.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광주시 5개구 체육회중 북구체육회가 1위를 차지했다. 정희환 북구체육회장은 “앞으로도 북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문화 보급을 통해 모두가 같이 어울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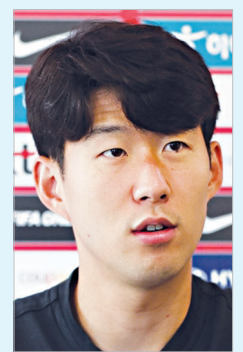
“이라크 침대축구 펼친 것 생각 변함없어”

손흥민 비대면 기자회견
“경기력 안 좋아 미안한 마음”
“슈팅 기회 없어…욕심 내겠다”

손흥민(29·토트넘)은 이라크가 ‘침대축구’를 펼쳤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손흥민은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2차전을 이날 오전 5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했다. 출전 끝에 0-0으로 비긴 이라크와 1차전 직후, 손흥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라크가 시간 끌기에 치중하는 ‘침대축구’를 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적장 킥 아드보카트 감독은 물론 상당수 한국 팬들도 손흥민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핑 테스트를) 함께 받은 이라크 선수도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해줬다. 선수 대 선수 입장으로”라면서 “아드보카트 감독이 나와 다른 경기를 본 것인가? 하는 게 내 입장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입국하고서 이들 만에 이라크전에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경기력 안 좋아서)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이들 전에 들어왔던 하루 전에 들어왔던 좋은 컨디션 유지 못 한 것은 결국 핑계다. -이라크전에서 상대 밀집수비에 고전했다. 앞으로 다른 팀들도 그렇게 나올 터다.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
▲밀집수비 경험해 보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세밀한 플레이가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인 패스의 강도, 볼 움직이는 속도 등 다 개선해서 세밀한 공간이 나왔을 때 파고들어야 한다.
-슈팅을 너무 아끼는 것 아닌가.
▲정말 해결하고 싶다. 책임감도 크다. 슈팅을 시도할 기회가 없었다. 슈팅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좋지 않은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면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고쳐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라크전 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얘기를 나눴나.

▲어떻게 하면 세밀한 플레이로 우리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 수비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라크전 끝나고 한 ‘침대축구 발언’에 대해 톱아드보카트 이라크 감독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규정했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경기 끝나고 도핑 테스트받을 때 함께 받은 이라크 선수도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해줬다. 선수 대 선수 입장으로…한 편으로는 이라크가 이해가 간다. 한국에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골키퍼부터 시간 끌기를 하고…이런 부분을 제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김광현 최악투 시즌 7째…밀워키전 1%이닝 4실점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못매를 맞았다. 김광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맞고 4점을 줬다. 김광현은 0-4로 뒤진 2회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해 21번째로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2%이닝 만에 몰려난 7월 29일 클리블랜드 인

디언스와의 경기 이래 가장 적은 이닝을 던졌다. 빅리그에 데뷔한 지난해 성적을 모두 합쳐도 김광현이 2이닝을 못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현은 왼쪽 팔꿈치 염좌 증세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돌아온 8월 25일 이래 세 차례 등판했고, 8월 30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김광현은 1회말 1번 타자 루이스 우리아



김광현

스에게 복판에 몰린 시속 143km짜리 빠른 볼을 던졌다가 좌월 홈런을 얻어맞았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고민 없이 김광현에게서 공을 빼앗았다. 밀워키 선발 하우저의 완봉 역투에 막혀 5회에야 첫 안타를 친 세인트루이스는 단 3안타에 묶인 채 한 명의 주자도 2루를 밟지 못하고 완패했다. /연합뉴스